

###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 道 이루거든 저부터 제도하소서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영양이 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섭취한 후 부처님이 찾은 것은 자리였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명상을 하기로 결정했고, 뽕빨리 나무 즉 보리수 아래에서 적절 한 위치를 찾았다. 그곳까지 걸어가는 동안 기적은 이루어진다.



삽화 김영수

심봉사가 기쁨에 눈을 뜨듯 눈 먼 용이 시력을 찾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로 걸어가 는 동안, 덕(德)이 무거운 나머지 걸음마다 땅이 진동을 한다. 덕(德)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세계의 존재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용(龍)이었다. 땅 속에 살던 눈 먼 용 한 마리가 이 진동의 영향으로 마음이 기쁜 나머지 눈을 뜨게 된다.

이 사례는 마치 심봉사가 심봉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눈을 뜨는 것과도 비슷하다. 그리고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비로 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보면 천룡팔부 신장들이 부 처님을 수호하게 된 연유가 다름 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갚는 친근 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눈을 뜨고 곧 출현할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용은 계승을 읊는다. 그러자 이 계승을 들은 부 처님은 '과거의 부처님들은 무엇을 자리로 삼으셔서 위없는 도를 이루셨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고 곧 스스로 '풀'이라는 답을 찾는다.

제석천왕이 부처님이 앉을 자리에 풀을 보시하다

정거전에게 두 번이나 선수를 빼앗긴 제석천은 부처님의 생각을 입자마자 재빨리 하늘에서 내려와 평범한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고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손에 풀을 들고 기다린다. 용의주도한 제석천왕은 평범한 인간으로 변한 자신의 이름을 '길상(吉相)'이라고 정해 놓았다.

이윽고 부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한 제석천왕에게 이름을

물어보며 풀을 청한다. 그리고 '길 상(吉相)'이라는 이름을 들은 부처 님은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내며 '나는 앞으로 불길한 것을 깨뜨리 고 또 한 번 커다란 원을 세운다. 부처님이 원을 세우는 것을 들으 며 풀을 공양하는 순간, 제석천왕 은 '도(道)를 이루거든 먼저 저를 제도하소서' 하는 발원을 하게 된다. 제석천왕은 부처님이 앉을 자 리를 공양한 것이다. 이후 그는 7 일 밤낮 동안 부처님 곁을 지킨다.

#### 마왕 파순과 제석천왕의 관계

부처님이 맹세를 할 때, 온갖 천룡팔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날뛰 자 악마왕의 궁전이 크게 요동치 게 되었다. 흔히 마왕 파순으로 알려진 악마왕은 욕계의 마지막 하늘인 제6천 타화재천이다. 타화재 천은 자신이 만들어낸 존재를 지배하는 신으로 제석천왕이 지배하는 욕계의 제2천인 도리천보다 훨씬 위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선 정에 들었던 7일 밤낮 동안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곁을 지켰던 제석 천왕도 마왕 파순과 대신 싸워주 지 못한다.

보통 신이면 악마에게 절대적으로 이기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제석천은 아수라라고도 아슬 아슬하게 승리를 거두고, 악마로 불리는 마왕 파순과도 대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을 보여준다. 신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석천왕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 검사 그만둔 佛子の '나' 다운 이야기

오원근 前 검사, 수필집 '검사 그만뒀습니다' 발간  
정도불교대학 다니며 정의·수행·귀농의 가치 강조



검사  
그만뒀습니다  
오원근 지음  
문학동네 펴냄  
1만 원

오원근 前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사생활 10년의 축방받는 중견검사였다. 그런 그가 2009년 5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사를 그만둔다. 평소 흠모했던 노 前 대통령의 비극을 보고 더 이상 검사 조직에 몸담고 있기 힘들다는 것이 사직 이유였다.

오 前 검사는 책 속에서 "평소 흠모했던 그분의 비극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소작농의 아들, 지방대 출신 고시 합격생이었던 그에게 검사직은 한국 사회를 사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고민은 결국 검사를 그만두게 했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행복을 찾아 불교 수행과 귀농의 길로 접어들었다.

평소 정도행자로서 불교 수행과 완전 귀농이 소원이라고 밝혀왔던 그는 현재에

있을 때도 농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서울생태대농학교에서 농사에 관한 철학을 배우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주말 농장에서 채소를 길렀다. 사직 후에도 변호사 개업도 미루고 문경 정도수원원으로 100일간 출가해 행사 생활을 했다. 변호사를 하고 있는 지금도 정도불교대학에 다니고 있다. <검사 그만뒀습니다>에서 오 前 검사는 '자연스러운 삶의 소중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제1장 '검사와 변호사'에서는 주로 검사 재직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대통령 서거로 사직을 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국민참여재판 1호 검사로 활동했던 이야기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입장, 법관으로서 그가 생각했던 정의, 고향에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서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2장 '나를 찾아가는 시간'에서는 그의 고백들이 담겨 있다. 소작농의 아들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를 지탱해준 어머니의 사랑, 자신감 없고 소심했던 자신의 청소년기에 대한 회한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통해 깨달은 자연의 위대함,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야기 등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고백이 잔잔하게 서

술돼 있다.

제3장 '농사를 쓰다'는 그의 꿈이었던 완전귀농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검사 재직 시절부터 서울생태대농학교를 다니던 경험, 퇴직 후 변산공동체학교 체험을 통해 농사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오원근 前 검사는 이 때 인간의 참다운 행복의 바탕은 흙과 함께하는 육체노동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때부터 관심 있었던 농사의 기쁨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제4장 '나를 내려놓기'에서는 마음에게 말을 걸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에게 마음 공부란 완전귀농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는 100일 출가를 하며 사흘 동안 무르팍이 깨지고 살갗이 벗겨져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며 만 배를 경험한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만 배는 단지 만 배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생에 대한 성찰과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이 내려놓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원근 前 검사는 "이 책은 '나다운 삶'을 고민하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나는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 '내 마음의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이야기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내가 부처·하늘·땅·산이로구나



나 바로 깨친다  
영흥 선사 지음  
꽃ս 펴냄  
1만 5000원

### 영흥 선사의 나 바로 공부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출가자나 재가자를 막론하고 수행자들은 해답을 찾아 눈 밝은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구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무엇이 내 인생을 참되게 만드는지, 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영흥 선사는 그의 법어집 <나 바로 깨친다>에서 "나 [我]의 깨달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영흥 선사가 말하는 '나[本我]'는 나와 무아를 초월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참 나[眞我]' '본불(本佛)'을 뜻한다.

생각하고 행하는, 갖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 삶의 주체는 무엇인가?

영흥 선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가 무엇인지, 나란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근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본래 나의 깨우침이며 본래 나를 깨닫기 위한 공부"라고 말한다.

"나 바로 깨치니 나 바로 부처이구나 나 바로 하늘이구나 나 바로 땅이구나 나 바로 산이구나..." (본문 중에서)

반복된 문장을 통해 절절하게 색공 유투를 초월한 자성인 '나'가 일체 삼라만

상을 만들어내고 쓰고 누리고 거두어들이는 주인공임을 강조하고, 참나를 깨닫기 위한 바른 공부를 쉬운 우리말로 명쾌하게 알려준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실참을 하면서 일어나는 경계나 의문에 대해 선 지식을 찾아 점검 받으려 했다면 영흥 스님의 '나 바로 깨친다'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영흥 스님은 21세에 망월사에서 출성 선사의 벽력같은 함에 언하대오하고 24세에 자수용삼매를 증득했다. 1974년 백양사에서 서용 스님을 은사 및 계사로 수계 득도하고 경봉 전강 벽초 해암 향곡 구산 고암 월산 서암 승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참문하며 법기량했다. 45세에 서용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았고 저서에는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물을 펼친다> <산을 세우고 물을 펼친다> <나> <불조보 록> 등이 있다.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9~11/15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운	담앤북스
3	망설일 것 없애 당당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4	엄마수업	법륜	휴
5	회해	탁남한	불광출판사
6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7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깨내라	기후	이자리
8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운주사
9	온 우주를 살리는 마음의 불씨	대행	한마음출판사
10	소셜 선	고은	김영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 특별판매

현불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つ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중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강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질2인쇄

현대불교  
현 불 삼 02)2004-8215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희담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격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